

## 벤처인이 함께 나눌 신경영 4가지

혼란스런 경제여건 속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들은 언제나 존재했다. 그런 기업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경영비법이 있다. 이를테면 편경영이나 감성경영 등으로 인간관계에 기반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깊숙한 디렉토리에 숨겨놓은 그들의 폴더를 열어 우리 벤처인들도 잘나가게 만들어줄 신경영방법을 배워보자.

### 유머도 경영인거야? 그런거야? **편경영**

기업경영의 유연성이 확대되면서 '재미있는 일터 만들기'가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직원들이 재미있게 일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편(Fun)경영의 핵심이다. 편경영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열풍처럼 불기 시작한 핵심인재 경영의 부작용들이 지적되면서부터이다. 조직이나 기업은 스타플레이어만으로 100% 성과가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스포츠게임과 같이 구성원 전체의 역할과 시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핵심인재경영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편경영이다.

**+ 사례** 편경영의 원조격인 사우스웨스트항공사의 예를 굳이 들지 않아도 편경영은 이미 국내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호프데이, 시네마데이, 마라톤데이 등을 제정하여 삶의 재미를 찾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서 직장이라는 공간을 재창조하고 있다. 편경영으로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간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감성경영**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서구의 경영방식인 연봉제, 벤치마킹, 6시그마 등의 경영방식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들 경영방식은 직원간의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기술적 역량을 지나치게 강조해 이기적인 직장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또 조직 전체의 경쟁력보다 개인의 위상확보와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우선시하게끔 만드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최근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CEO들 사이에 감성경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걸음 더 가까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서라'. 총체적인 위기상황의 돌파구로서 감성역량 극대화를 통한 감성경영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 사례** 직원간 상호신뢰와 유대감, 직원들의 자발성을 중시하는 감성경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매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이메일 경영'을 펼치는 CEO들이 늘고 있다. 삼성SDS, 광고대행사 한컴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대표는 사원과의 심리적 거리를 허물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서는 감성리더로서 노사화합과 참여정신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 내 안에 '믿음' 있다 자율경영

기업이 성장을 거듭할수록 최고경영자 몇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고객만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정확히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파악된 니즈를 얼마나 빨리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기업생존의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양 없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

자율경영이나 책임경영 혹은 성과경영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이다. 자율경영으로 권한을 위양받은 하위관리자는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막대한 책임이 뒤따른다.

**+** 사례 도요타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인간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러한 인간관에는 '관리'가 아닌 '자율'이라는 사고방식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경영이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변혁을 거듭하는 도요타 기업의 성장 이유다.

## 영혼을 가진 노블리스 오블리주 윤리경영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호감지수(CF)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기업에 갖는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39.1점인 낙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 다수의 국민들은 기업의 비윤리경영을 첫번째로 꼽았다.

윤리경영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경영방법이다.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윤리경영은 출발하였다. 한마디로 상호신뢰의 경영방법이다.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은 기업도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윤리경영은 기업과 고객, 지역이 함께 펼쳐나가는 또 하나의 윈-윈 전략인 것이다.

**+** 사례 제약업체 머크의 '회선사상충중' 신약개발 사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개발 하더라도 고객 대부분이 빈곤층이라 시장성 확보가 불투명한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머크는 이를 추진했다. '인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품 개발'이라는 본래의 비전에 충실한 결정을 했던 것이다. 머크는 윤리경영을 통해 시장과 주주로부터 높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습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이 있다. 성공의 길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역시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해 모방하는 것이다. 여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습관 10가지를 마련하였다. 이 행동철학을 두루 두루 나눠 우리 모두 성공을 창조해보자.

- 1.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가치 없는 일들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자신의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여하여 성과를 만들어내고 만다.
- 2. 오늘 할 일은 지금 당장 완수해 버린다.**  
'망설이다가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3.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있게 구성한다.**  
놀이와 일의 구분이 힘들 정도로 일에서 재미를 찾아내는 제3의 눈이 있다.
- 4.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밀물처럼 밀려와도 결코 굴복하거나 타협은 하지 않는다.
- 5. '하루아침에 로마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위대한 일을 완수하는데 언제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요소가 끈기이다.
- 6.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가꾸어 나간다.**  
일에만 집착하여 다른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성공과 행복의 두 마리 토끼가 손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 7.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한다.**  
잘 맞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에서 특별한 가치를 찾아낸다.
- 8. 남들의 성공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돕는다.**  
자연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먼저 마구 뿌린다.
- 9. 자신의 모든 면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부족한 면은 사랑으로 감싸주어 끝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각물로 완성한다.
- 10. 매사에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  
문제에서도 배운다. 성장에서도 배운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자꾸만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